

2010 광주비엔날레 지오니 총감독 인터뷰

“오월 항쟁 은유적으로 표현하겠다”

제8회광주비엔날레를 총지휘하게 될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37)은 10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더 많은 모험을 펼치는 비엔날레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작품·작가 먼저 보고 주제 잡을 것

-감독으로 선임된 소감은.

▲광주비엔날레는 많은 영감을 주는 중요한 현대미술의 장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일상에 녹아 있는 문화를 전달해주는 행사이다. 뉴 뮤지엄 등에서 많은 기획을 했고, 이런 경험을 살려 광주비엔날레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

광주시민들과 소통이 중요

-제8회 대회의 기본 방향은.
▲베니스비엔날레 등 유명 미술행사들은 대부분 현지의 역사와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역사적인 공간을 살리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미술을 재조명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주제가 작품과 작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난 대회와는 달리 일정 주제를 잡을 것이다. 작품·작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겠다. 주제는 일정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먼저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주제에 한계와 작품과 작가들이 선정된다.

-2010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주 역사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광주의 역사·정치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예술과 정치란 것은 복잡한 관계다. 예술은 단순 현상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아 된다. 예술은 현재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고은 시인이 ‘시’는 역사의 노래라고 말했다. 역사를 탐하면서 현

대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항쟁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내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은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에너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표출하겠다.

-작가와 협업의 과정을 통해 전시를 기획했다던데.
▲항상 작가들과 작업을 하면서 무언가 배운다. 예술가들의 요구에서 변화와 흥분이 시작된다.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건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작가들은 예술을 만들어 내는데 그치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로부터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가들이 핵심에 설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탐험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모험 펼치는 비엔날레 기획

-현대미술계에서 비엔날레 의미와 감독의 역할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비엔날레이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유이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개방된 무대이다.

요리사(작가)들이 주방(비엔날레)에서 만든 음식(작품)을 손님(관람객)에게 내놓는 웨이터가 바로 감독이다. 손님은 음식을 기억하지, 웨이터나 음식의 가격을 기억하지는 않는다. 일상의 다른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이 감독의 일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1973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미술사학과 졸업 ▲베를린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2006년), 마니페스타(2004년) 감독,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2003년) 등 50여회 대규모 전시 기획 ▲플래시아트 인터내셔널 편집장(2000~2002년), 전 미국 뉴욕 뉴 뮤지엄 특별전 디렉터.

광주가 만든 첫 5·18 영화 ‘순지’가 온다

18일 광주 메가박스서 시사회

감독·배우·스텝 지역출신 참여



광주가 제작한 첫 5·18 영화 ‘순지’(90분)가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 메가박스 M관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광주 출신 박광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독립영화 ‘순지’는 광주 지역에서 첫 설립된 영화 제작사 시네웍스(대표 박광만)와 대동문화재단(회장 조성열)이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시사회에는 박감독과 출연배우들이 참여한다.

지난 2007년 5월 크랭크인 한 ‘순지’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둔 80년생 여주인공 순지가 5·18 재현 행사를 체험하면서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순지 역은 배우 장세윤씨가 맡았으며 양인호씨 등 지역 배우들과 지역출신 스텝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순지’는 극 영화지만 2007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재현된 ‘5·18 민중항쟁’ 전야제 행사를 영글에 담아 다큐멘터리적 요소도 가미했다.

박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까지 쓴 ‘순지’는 2007년 9월 촬영을 마쳤지만 영화 후반 작업비를 구하지 못해

예를 먹었다. 제작비 3억 7천만원 가운데 광주정보산업진흥원이 1억 4천만원을 투입했으며 나머지는 박 감독이 흥보영상 등을 촬영하며 조달했다.

5월 개봉 예정인 ‘순지’는 전국 개봉을 목표로 배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 개봉 후 러브콜을 보내온 미국 뱅가드시네마와 북미시장 배급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박광만 감독은 “지금까지 5·18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았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며 “5월 당시 상황을 묘사하기 보다는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통해 5·18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의 062-461-1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입장료 9천원

이사회, 2천원 인상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5일)의 입장료가 지난 대회에 비해 2천원 인상된 9천원(성인 기준)으로 확정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0일 제110차 이사회를 열고 디자인비엔날레의 입장료, EIP(Event Identity Program·사진), 큐레이터 등을 정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0일 제110차 이사회를 열고 디자인비엔날레의 입장료, EIP(Event Identity Program·사진), 큐레이터 등을 정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0일 제110차 이사회를 열고 디자인비엔날레의 입장료, EIP(Event Identity Program·사진), 큐레이터 등을 정했다.

인상하고, 목표 관람객 수도 2007 보다 5만명 늘어난 30만명으로 잡았다. 디자인비엔날레를 홍보하는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대표 이미지인 EIP

도 정했다. 영문과 한글의 깔끔한 맛을 살려 주제인 ‘더할 나위 없는 것’과 ‘The Clue’(살마리)를 표현했다.

또 홍익대학교 이나미(산업미술대학원) 교수 등 15명은 은병수 총감독을 도와 전시를 기획할 큐레이터를 선정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비즈니스 큐레이터에는 더 페시픽 그룹 세이 박(54·미국) 대표를 뽑았다. 비즈니스 큐레이터는 전시와 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예산 3천500만원을 들여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홈페이지를 통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명창 이선유의 생애와 예술 세계



‘이선유 오가전집 연구’ 출간

경남 하동 출신 명창 이선유(1873~1949)가 부른 판소리 다섯 마당을 김택수가 받아 정리한 ‘이선유 오가전집’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이선유 오가전집 연구’와 ‘이선유 오가전집 연구’가 나왔다.

그러다 강사 최남경씨가 펴낸 ‘연구’는 이선유 명창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다룬 책으로 이 씨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 확보한 진술을 통해 이선유의 생애를 정리했으며 사실과 음반

의 특징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등 음악과 문학 양 분야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 구례 출신 명창 송만갑과 박봉술·소리를 비교하는 도표도 실었다. 그밖에 김택수의 삶을 살펴본 부분에서는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김연수, 전남일보(옛 광주일보) 회장을 지낸 김남중씨 등 광산 김씨들이 소리꾼들의 후원자였음도 보여주고 있다. ‘역주’는 ‘춘향가’ 등 다섯바탕에 대한 주석본으로 고제 동편제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저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화여대 독문과 출신인 최씨는 서울대에서 국악 이론으로 석사학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이자 국악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유명한 최중민 씨의 딸로 부녀가 함께 국악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도서출판 박이정·각권 2만5천원, 3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감독 선임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성과”

김은영 재단 정책실장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고, 인력풀을 갖춘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제8회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

에서는 재단의 정책연구실(실장 김은영·사진)이 본격 가동돼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추진된 재단 개혁의 핵심 카드인 정책연구실은 감독 후보군을 압축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김은영 실장은 “국내의 미술계 전문가 120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하



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남짓 검증 작업을 벌였다”면서 “이를 통해 80명 후보군을 줄였고, 다시 20명, 13명, 4명으로 압축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과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총감독 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후보를 찾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단이

책임감 있는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였다. 김 실장은 “총감독 선정 자문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다시 검증해 최종 1명을 선정하는 등 물 들 뜬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ovie guide section with column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Hami Cinema, and Zeil Cinema, listing movies and showtimes.